

물성을 초극한 상상의 공간

김복영

김동연이 이번 서울전에서 보여준 작품들은 그가 독일 현지에서 제작한 근작들이 대중을 이룬다. 드로잉과 입체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처리된 작품들은 그가 해외에서 모색해 온 한국의 유기체적인 공간과 자연을 담고 있어 주목된다.

<무제>로 명명된 작품들의 기본 발상은 재료가 갖고 있는 특성을 파괴시키지 않고 거기에 물성이 호흡할 수 있는 공간을 설정함으로써 자연성을 엿보려는 데 있다. 작품의 형태보다는 형태를 산출하는 공간의 자연본성을 강조하려는 것이 특징이다.

드로잉과 입체 모두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특징들은 무엇보다 공간과 자연을 사물들 간의 호흡, 융합 내지는 합일의 상황 속에 연출해내려는 데서 돋보인다. 드로잉의 경우 연필, 목탄, 해먹을 주재료로 해서 자신의 내면세계를 분출시키되 이를 매개로 여백이나 호흡을 일구어내고 있다. 이를테면 해먹의 목직함과 연필(목판)의 경쾌한 필죽들의 강세가 유발하는 분방함을 하나로 융일시키면서 형태나 형상을 만들기 보다는 여백을 산출하기 위한 '과정'을 강조해 보여준다. 자연의 본질로서의 과정 자체에 대한 관심은 입체작품에서도 마찬가지다. 입체는 모두 세 가지 유형으로 다루었다. 나무, 돌, 흙, 브론즈로 처리된 뿔려진 구조물이라든가 합판으로 쇠선 형태의 터널을 만들어 엮어놓은 듯한 구조물이 있는가 하면 한옥의 지붕만 남기고 방과 마루를 제거한 잔여 공간 구조물 등이 그것이다. 이것들은 태고의 울림이나 미지의 음향을 간직한 자태를 드러내기도 하고 물성을 초극한 상상공간을 연상케 한다.

무엇보다 김동연의 성과는 입체작품에서 돋보이지 않았나 생각된다. 대좌 위에 진영하거나 바닥에 누거나 공중에 띄우는 방식들을 구사함으로써 입체물의 이미지와 의미를 유발하는데 기민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공중에 띄운 작품들의 경우 가옥의 지붕형태가 연한 회백색의 분위기에 고무되어 미지의 공간으로 부상하는 형상의 변형을 느끼게 한 것은 특기할 만한 것이다. 그의 근작들은 채워진 것을 비우고 막힌 것은 뚫어 놓는다는 평범한 우리네 선인들의 자연관을 이 시대의 감성으로 입증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의 시선으로 옛 것을 재해석하는데 뛰어난 설득력을 과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 그의 서울전은 입체나 설치작품의 마땅한 아이디어 내지는 방향이 빈곤한 현재 서울화단에 신선한 충격이 되리라 믿는다.